양봉원 및 전국 기구업체 대표자 회의 개최

- 배경수 회장…자조금 사업의 필요성 강조
- 양봉원 각 70만원 이상 거출, 기구업체도 적극 참여키로

한국양봉협회는 지난 2월 17일 제2축산회관 6층 회의실에서 전국 기구업체 및 양봉원 대표자 회의를 열고 올해 협회 추진 계획 및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배경수 양봉협회장은 업무보고에서 "양봉농협에서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일부 알려지면서 이마트내 잡화꿀 판매가 중단되는 피해를 보고 있다"며 "더 이상 이와 같은 문제로 판매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벌꿀에 대한 불신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조금 사업이 필요하다며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참석한 양봉원과 전국 기구업체 대표자들 역시 자조금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적극 참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양봉원은 각 70만원 이상, 전국 기구업체는 금액 기준 없이 자조금 사업에 동참키로 했다.

한편 협회는 자조금 사업이외에 벌꿀 규격기준 신설, 원료 벌꿀 품질관리 개선, 꿀벌 기능성 전용사료 개발, 각종 연구 사업 등 향후 추진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양봉